

시인 '김수영', 역사와 민중을 노래하다

광주시립극단 제22회 정기공연 '거대한 뿌리'...오는 25-27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박근형 희곡·이은준 연출, 노희설·채윤정 배우 등 열연 자유갈망한 현실 참여 시인의 '삶과 작품세계' 담아내

뿌리 없는 나무는 없다. 나무가 자라려면 뿌리가 있어야 한다. 더 높게 자라기 위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 혹은 예쁘게 자라기 위해 가지치기도 한다. 하지만 뿌리는 바꿀 수 없다. 인간도 뿌리가 있다. 그 뿌리는 우리 역사이자 전통이고 인간의 본능이다.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있기에 풀은 눕지만, 다시 일어난다.

소시민적 슬픔을 모더니즘적인 감각으로 노래하며 '자유'를 갈망한 현실 참여 시인 김수영의 시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

광주시립극단 제22회 정기공연 '거대한 뿌리'가 오는 25-27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 작품은 극단 골목길 예술감독인 박근형(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희곡으로, 혼란과 격동의 시기 불의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맞선 김수영 시인의 삶과 시를 그려냈다.

작품은 임종을 앞둔 김수영 시인이 누워있는 적십자병원에서 시작해 그의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해방 후 미군정기, 그리고 6·25전쟁을 겪으며 비참하게 살았던 젊은 날의 김수영과 4·19혁명을 기점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를 갈망한 현실 참여시인' 김수영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았다.

시공간을 오가는 속도감 있는 장면 전환과 다양한 음악·영상·자막 등을 활용해 극적인 재미를 더했다.

작품에서는 시인 김수영 외에 다양한 작가들도 만날 수 있다. '목마와 숙녀'로 잘 알려진 시인 박인환, 흑인 시를 쓴 배인철 시인, 명동 백작 이봉구 작가 등이 등장해 그 시절 작가들의 낭만과 삶을 엿볼 수 있다.

작품 연출을 맡은 극단 파수꾼 대표 이은준은 제55회 동아연극상 신인 연출상, 2016년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서울연극제 우수상을 받은 연극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연출가 중 하나다.

극단 골목길에서 활동하다 2014년 극단 파수꾼을 창단했다. 대표작으로는 '7분', '괴벨스 극장', '속살' 등이 있다. 여기에 제55회 동아연극상 무대 예술상을 받은 조명 디자이너 신동선이 참여한다.

시인 김수영 역은 노희설, 김수영의 아내 김현경 역은 채윤정 배우가 맡아 열연한다. 그 외 고난영, 이정진, 이영환 등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배우들이 개성 있는 연기를 펼친다.

이은준 연출은 "은땀으로 시대를 느



광주시립극단 '거대한 뿌리' 공연 모습

끼고 괴로워하며 몸부림쳤던 김수영 시인의 일생을 빌어서 우리의 역사와 뿌리, 민중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작품으로 관객 분들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거대한 뿌리'는 13세(중학생)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러닝타임은 90분이다.

전석 1만원 지정석으로 운영된다. /최명진 기자

정순애 사진작가 '인생길' 무등미술대전 문체부장관상

한국화 이설·서양화 문희진 등 대상 5점 선정

제40회 무등미술대전 문화체육부장관상에 정순애 사진작가의 작품 '인생길'이 선정됐다.

광주광역시립미술협회 주최로 7일 "제40회 무등미술대전 심사"가 지난 4일 광주비엔날레관에서 열린 가운데 올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무등미술대전에는 전국 각지에서 총 1천855점이 출품됐다.

지난해보다 25% 줄었으나 올해 대전 준비 기간이 3개월로 짧았던 점을 감안하면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과 열의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전체 입상작품 수는 문화체육부장관상 1점을 비롯해 대상 5점, 우수상 27점, 특선 361점, 입선 673점 등 총 1천67점이다.

대상은 ▲한국화 이설 '중쟁' ▲문인 화이은정 '묵죽' ▲서양화 문희진 'Still I Life' ▲공예(섬유) 최영 '환희' ▲서예(멋글씨) 손미선 '봄비'다.

김종경(조선대 교수) 심사위원장은 "40년을 맞은 올해 무등미술대전에도 독자성과 창의성이 돋보이고 깊이



정순애 작 '인생길'

는 숨결이 느껴지는 다양한 작품들이 대거 출품됐다"며 "동시대의 새로운 조형성을 표현한 작품들이 수상했으며 현대 회화가 요구하는 구성, 색채 등 표현방법에 탁월한 감각과 뛰어난 재능을 보여준 작품들이 호평을 받았다. 내년에도 완성도 높고 뛰어난 수작이 선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한국 마케팅 신화' 이해선 초청 강연회

오는 12일 전일빌딩245

'한국 마케팅의 전설' 이해선(사진) 한국마케팅협회 회장 초청 강연이 광주에서 펼쳐진다.

(주)위대한경영자가 주최·주관하고 어둠속의 빛 사회적협동조합이 협찬하는 이번 강연은 오는 12일 오후 6시 전일빌딩245 8층 다목적대강당에서 펼쳐진다.

이 회장은 지난 40여년 간 경영·마케팅 경험을 담아낸 에세이 '생각의 크기가 시장의 크기다'를 최근 출간한 바 있다. 10개가 넘는 조 단위 프로젝트를 이끈 한국 마케팅 혁신의 산증인이 알려주는 생생한 마케팅 이야기를 담고 있다.

비트, 핫반, 설화수, 이니스프리, 코



웨이를 등 다양한 브랜드로 한류를 이끌 한국 최고의 마케터인 이 회장은 이날 강연에서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드리머&빌더'를 주제로 광주 시민들과 만난다.

행사는 마케팅에 대한 명강의와 함께 책을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으로 풍성하게 채워질 예정이다.

강연 참석을 희망하는 시민은 구글 폼(<https://forms.gle/JVVCgJpdovYHKxcs8>)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010-5502-7553. /최명진 기자

너드커넥션이 들려주는 '봄의 사운드'

19일 광주예술의전당 기획공연 포커스

광주예술의전당이 올해 기획공연 포커스 첫 번째 무대에 너드커넥션의 '봄의 사운드' 무대를 선사한다.

오는 19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어지러운 세상, 따뜻한 음악'을 표어로 활동하고 있는 4인조 밴드 너드커넥션이 주인공으로 나선다.

너드커넥션은 2018년 국내에서 열린 '에메르자 세계밴드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고 독일 '타우베르탈 페스티벌 2018' 무대에서 한국 대표로 화려하게 데뷔

했다. 2018년 싱글 앨범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미니앨범을 발표해 과감하고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관객 참여형 공연을 선보이며 독보적인 공연 스타일로 많은 대중들의 주목을 받았다.

팝적인 요소가 가미된 락 사운드와 기승전결이 뚜렷한 멜로디, 깊이 있는 가사로 확실한 음악적 세계관을 구축한 너드커넥션은 이번 공연에서 대표곡 '좋은 밤 좋은 꿈', '여전히 이곳에' 등을 선보인다. 보컬·기타 서영주, 기타 최승원, 베이스 박재현, 드럼 신연태가 참여한다.

관람료는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이며 예



너드커넥션

매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및 티켓링크(1588-7890)에서 가능하다. /최명진 기자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 때 "여보야"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에서 "여보야"를 다운로드 받고 당신과 평생을 함께 할 배우자를 찾아보세요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